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녹색환경과장 : 장석현 / 에너지관리팀장 : 박인서 / 주무관 : 공업7급 전호진】

연락처(☎) : 2600-4042

한상욱 의원 구정질문 내용

- (15)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구의 입장 및 추진 대책

□ 답변내용 ----- (녹색환경과)

-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2011년 서울시에서 마곡지역에 대한 집단 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SH공사가 사업 시행하였고, 2016년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6차례 유찰되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체도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시는 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公社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과 재정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크게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지난 7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면담을 통하여 강서구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일체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였고,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전제로 한 발전소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 ▲ 2027년 열 부족이 예상되는 마곡지구 등에 차질 없는 열 공급 해결 강조
- ▲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요금 혜택 유지와 현행 열 요금체계 유지
- ▲ 발전소의 용량 증설 불가
- ▲ 강서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반영 요구

강서구의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는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뿐 에너지복지, 열 요금, 발전용량 등의 변화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우리구는 서울시의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마곡지구의 적기 열 공급과 주민들의 불안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